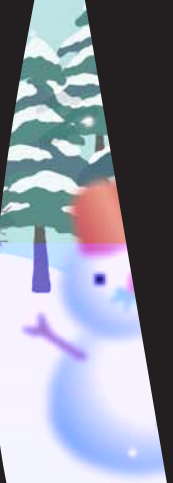




충남

충남  
충남  
충남

후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Chungcheongnam-do Youth Volunteer Center

우리 충청남도 체육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40만 도내 청소년을 위해 끝없는 봉사과 헌신이 최고의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내 청소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청소년행정서비스헌장

## □ 청소년을 21세기 주역으로 육성 □

### ▣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참여 확대

- 청소년들의 정책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연 1회 이상 청소년과 도지사와의 만남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도 청소년자치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연 2회 이상 청소년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보살피 나가겠습니다.
- 청소년의 독립된 인격체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박람회 1회, 문화정보지 발간 4회, 성년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 ▣ 국제화·정보화 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 상호 문화교류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를 연 5회이상 실시 하겠습니다.
- 청소년의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사이버 백제역사 문화관, 예절마당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 학습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과 수련활동 지원

-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의 집 7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어울마당, 음악회, 동아리육성 등 3가지 이상의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청소년 수련시설 13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인 수련활동 공간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모두가 참여하는 청소년 보호

- 청소년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영재육성장학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놓여준 청소년의 학업증진을 위해 학생기숙사 1개소(유성, 224명)를 운영하겠습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개소이상을 운영하고 15개이상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봉사활동터전을 30곳이상 확보하여 봉사활동을 돕겠습니다.
- 청소년의 진로, 이성, 성문제등 고민을 풀어주기 위하여 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1개소를 운영하되, 상담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연 2회 이상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 손길나눔

- 2 청소년행정서비스헌장
- 3 차례
- 4 프로그램 돋보기
- 7 우리들의 봉사활동
- 10 I'M TEENAGER
- 11 동아리 탐방 \_너나들이/ 천사들의 모임
- 13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시범학교 소식 \_ 목천중학교
- 15 봉사활동 체험수기
- 18 봉사활동 도우미 \_ 2005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수상자 명단



본소식지의 동아리탐방, 우리들의 봉사활동은 본센터소속의 기자들에 의해 작성된 원고입니다.  
기자로 활동하고 싶은 학생은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손길나눔은 충청남도의 도움으로 계간 발행됩니다.  
센터 홈페이지(<http://www.bongsai.or.kr>)에서 「손길나눔」을 만나보세요.  
최근호는 물론 과월호까지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지·원고 보내실 곳

320-802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19-1 공설운동장내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전화\_041)736-9003~4 팩스\_041)733-1984

발행처\_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발행일\_2005. 12 비매품

편집·디자인\_신세계 커뮤니케이션즈 Tel.(042)636-8955

# 프로그램 돋보기

| 프로그램 돋보기 |

프로그램 돋보기는 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란입니다.  
봉사활동 담당선생님 그리고 동아리지도교사 등 학생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신 모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2005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 ◎ 심 사

	일 시	장 소	내 용
1차(서류심사)	11월 7일	충청남도교육청 회의실	개인, 동아리 봉사활동, 체험수기, 만화·컴퓨터그래픽 출품작 심사
2차(면접심사)	11월 9일	연기교육청 회의실	개인, 동아리봉사활동 신청자 면접심사 25명(동아리)

### ◎ 박람회 및 시상, 전시

- 일시 : 11월25일 ~ 26일
- 장소 : 서산 공설운동장 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 표창 및 시상 : 65명(동아리)
- 인원 : 청소년 1,000여명, 장애인 60여명, 지도자 100여명 등 총 1,200여명
- 내용 : 홍보부스 전시물 관람, 우수자 시상, 축하공연 등



## 장애우와 함께하는 청소년봉사활동

### ◎ 장애인 등반보조활동

- 일시 : 10월 16일, 11월 6일
- 장소 : 전북 고창군 선운산, 전남 장수군 백양산
- 인원 : 매회 장애인 20명, 청소년자원봉사자(논산고등학교 10명, 논산여자고등학교 10명) 20명, 지도자 6명
- 내용 : 장애인 등반보조활동, 장애편견인식표 부착, 환경정화활동 등

### ◎ 2005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및 청소년송년큰잔치 관람

- 일시 : 11월 25일
- 장소 : 서산시 종합운동장내 서산농·어민문화체육센터
- 인원 : 논산정신요양원, 서산장애인복지관, 수린목요양원 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총 60명
- 내용 : 2005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및 청소년송년큰잔치 관람, 시설홍보 등





## 농어촌체험 봉사활동

### 청소년봉사활동 터전인증제

- 일시 : 2005년 12월 1일 ~ 12월 20일
- 장소 : 도내 신규 활동터전회원가입 터전
- 인원 : 30개 터전방문
- 내용 : 30개 신규활동터전을 방문 후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사전조사 및 평가하여 10개의 터전을 선정하여 협약서작성 및 현판을 수여 합니다.



### 청소년문화체험 · 환경보호봉사활동



일시	장소	인원	내용
10월 1일	당진석문방조제일원	청소년 45명 지도자 2명	전국쌀사랑음식축제참여 지역행사체험 활동 및 환경정화봉사활동(석문중)
10월 6일	대전엑스포과학공내	청소년 98명 지도자 14명	지상군페스티벌병영문화체험 및 행사장내 환경정화활동(이인중)
10월 7일	경북 안동시 및 하회마을	청소년 72명 지도자 13명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체험활동 및 하회마을 견학 및 환경정화활동(광석중)
10월 13일	청주예술의전당	청소년 47명 지도자 11명	국제공예비엔날레 견학· 체험 및 행사장내 환경정화활동(부리중)
10월 17일	보령읍성 및 해산루일원	청소년 139명 지도자 10명	문화재보호구역체험 및 환경정화봉사활동(보령중)
10월 20일	청주예술의전당	청소년 54명 지도자 7명	국제공예비엔날레 견학· 체험 및 행사장내 환경정화활동(석성중)





## 청소년아르바이트 운영활성화



### 프로그램명 : 2005 청소년진로캠프 - 웰컴투 진로여행 -

- 일시 : 12월 9일 ~ 11일 (2박 3일)
- 장소 : 충북청원군청소년수련관
- 인원 : 총 102명 (청소년 90명, 지도자 12명)
  -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 30명
  - 충청북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 30명
  - 대전광역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 30명
- 내용 : 홀랜드검사, 경제 OI, 진로터부게임, 리더쉽특강, 이미지메이킹과 매너  
청소년 모의 창업박람회, 청소년창업사례 발표



## 청소년자원봉사지도자 전문성 강화



### 청소년자원봉사지도자(학부모) 연수

- 일시 : 11월 22일 11:00 ~ 15:00
- 장소 : 칠갑산 호텔 살레 (청양)
- 인원 : 도내 학부모 봉사단 40명
- 내용 : 청소년자원봉사지도자 학부모 활동 사례발표, 청소년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안내,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실습 및 분임토의



## 2005 청소년송년큰잔치

- 일시 : 11월 25일
- 장소 : 서산공설운동장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 인원 : 청소년 1,000 여명, 장애인 60 여명, 지도자 100 여명 등 총 1,200 여명
- 내용 : 사물놀이공연(서산농공고), 수화공연(서산고등학교), 관악연주(서산농공고), 합창댄스(서산여고),  
헤어디자인쇼(병천고), 종합음악연주(한서대) 등



## 겨울방학 봉사활동 안내

- 일시 : 2006년 1월 2일 ~ 2월 18일
- 장소 : 도내 청소년봉사활동터전
- 인원 : 청소년 1,000 여명
- 내용 : 도내 청소년봉사활동 터전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참여  
※봉사활동을 원하는 청소년은 센터 홈페이지 봉사활동 하고싶어요에 등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과정은 본 소식지 뒷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동아리 혹은 학교의 봉사활동 내용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게재하여 드립니다.

## 사회복지시설 기증을 위한 감자재배



최선훈 기자\_석문중학교



감자 캐기

석문중학교 밀알봉사단은 2004년 말에 조직하여 약 1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였다.

일일찾집, 독거노인 방문, 감자재배. 그 중에서 제일 힘들고 뜻 깊었던 일은 역시 감자재배가 아니었나 싶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앞 밭을 빌려 감자밭으로 가꾸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감자를 심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밭을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원래 밭에 있던 폐비닐을 걷어내고, 퇴비와 비료를 넣은 다음 기계로 갈아엎었다. 그 다음엔 감자를 심어야 했다. 우리 밀알봉사단원들은 학교가 끝난 후에도 모여서 씨감자를 잘랐다. 자른 씨감자를 차근차근 심기 시작했다. 서툰 일솜씨였지만 주위의 관심과 격려로 감자 심는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감자를 심은 후엔 이젠 캐는 일만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여름이 되어 감자를 캐기 전까지 잡초 뽑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다. 때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내 잠깐의 봉사로 독거노인 할머니, 할아버지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다. 여름엔 기다리고 기다리던 감자

를 캐 수 있게 되었다. 봄에서부터 우리의 땀과 정성으로 재배한 감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일요일에도 학교에 나와 감자를 캐다. 3학년 오후들이 비닐을 벗겨주면 우리는 장갑을 끼고 호미를 들어 감자를 캐기 시작했다. 선생님께서 캐는 방법을 잘 알려주셔서 실수도 별로 안하고 잘 캐 수 있었다. 정말 우리의 노력을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주렁주렁 큰 감자들이 많이 열려 있었다.

우리 밀알봉사단은 우리가 직접 재배한 감자와 이를 일부 팔아 토마토를 사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소망의 집과 평안마을에 기증하였다. 그 곳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우리가 직접 재배한 감자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고마워하셨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너무 고마워서서 우리들은 몸 둘 바를 몰랐다.

우리들의 조그마한 마음에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베푸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내년에도 좋은 농작물을 재배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즐거움과 뿌듯함을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들었다.

소망의 집 감자 전달



## 아름다운 조리나눔터



노진웅 기자\_병천고등학교

구름한점 없는 가을이 지나가고 추운 겨울이 되었다.

11월 19일 우리 동아리에서는 한달에 한번 식사대접을 해드렸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계시는 샬롬의집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다. 외진 곳에 있는 샬롬의집은 주위 자연 풍경도 좋았고 공기도 좋은 곳이었다. 우리들이 도착하자마자 모두들 기쁘게 반겨주셨다.

우리들은 가지고 온 음식들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준비를 했고, 먼저 도착한 친구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목욕을 시켜드리기로 했다. 목욕을 다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식당으로 모셔 준비해둔 음식을 대접해드렸다. 그리고

토스트판매를 통해 얻은 돈을 모두 이용해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내실수 있는 내의를 사서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나눠드렸다. 내의를 받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우리들이 고생을 괜히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음식을 다 드시고 나서는 우리들이 옆에 붙어 앉아서는 많은 얘기들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손톱도 깎아드리고, 또 한쪽에서는 걸레를 들고 방청소도 하였다. 대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을 때 는 잘 닦는 다고 칭찬도 해주신다.

이제 갈 시간이 되었다. 모두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

키부터 아빠께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았  
사활동을 하시는 아빠의 모습은 매우 행복해보  
그땐 어려서 그런지 봉사활동이 왜 그렇게 즐거  
의아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알 수 있습니  
둥이 어느 놀이기구를 타는 것보다도 재밌는 일  
니다.

는 언제나 저에게 “너도 커서 마음으로 봉사하  
되어라. 어느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  
! 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을 봉사활동을 시작한건 초등학교 5학년 때 중3  
와 신아원에 가는 것 이었습니다. 그때는 언니  
봉사활동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언니와 같이  
! 그냥 좋아서 언니 뒤를 따라다니다 보니 그곳  
인지 모른 채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  
했습니다. 언니의 봉사활동을 보면서 이렇게 힘  
하든지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언니를 따라 나섰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 하기  
는 다시는 언니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께서는 참 속상하셨을



처음 신아원에 갔을 때 신아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우리를 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 하다가 귀찮아서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많이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선생님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선생님들이었다더라도 반겨주지 않았을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맡은 반인 영아반, 정말 떨리고 떨렸지만 기대하고 또 기대가 가는 곳이었습니다. 영아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양증맞은 갓난아기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을 배우기시작하고 장난 끼가 가득한 개구쟁이 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봤을 때 다가가기 힘들지도 모를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만나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다보니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 아이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더 많이 주고 싶었고 정말 친동생들이 생긴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날 가면서도 “빨리 가서 애들 보고 싶어” 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또 그만큼 설레 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영아반의 방을 치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갓난 애기들이 생활하는 방이어서 더욱 더 깨끗하게 치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바닥에 깔고 앉아 노는 매트도 빨랐습니다. 처음엔 그 매트가 너무나 커서 저희 셋이 감당하지 못하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계속 해서 하다보니 요령도 생겨 선생님의 도움 없이도 잘 해냈습니다.

집에서 하지 못 했던 일들을 여기서 하면서 배울 점도 많았고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아주 갓난애기를 안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양증맞게 작은 손 초롱 한 눈망울, 너무나 작은 발, 웃는 얼굴, 애기들은 생각만 해도 두근거렸습니다. 이제는 선생님들도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신 걸까요? 갓난애기를 처음 안아본 저희는 설레 이기도 했지만 걱정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떠는 모습을 보자 선생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불안해하면 그 느낌이 아이에게 전해져 아이들도 같이 불안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아이에게 불안을 주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모든 일들이 재미있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의 신발 빨기를 했습니다. 그 신발이 적고 많던 저희 에겐 그 수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오직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한 가족처럼 생각 하고 있는 저희 마음이 굳게 열려 있었으니까요.

애기들이 울면 달래주기도 하고 우유도 먹여주고 심심해하면 책도 읽어주고 놀아주고 웃고 울고 장난치고 혼내고, 이러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만큼의 정이 두터워졌고 이제 매일매일 보고 싶어 눈에 아른아른 거리기까지 합니다.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우리의 출발은 늦었지만 지난 2년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을 거르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니 저 자신도 무척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왔을 때 반겨주고 알아봐주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이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집에 돌아갈 때에도 우리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할 때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만 다음에 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지낼 것이기 때문에 꼭꼭 참고 다음주를 기다립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시작은 많이 모자랐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배운 것이 많아 앞으로도 계속 봉사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스스로 실천하고 느끼지 않는다면 봉사활동은 그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때 그냥 단순히 놀아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각오들을 꼭 실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신아원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수학, 영어공부 가르쳐주려 합니다.

신아원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공부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에게 수화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 수화에 대해선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기본 정도는 알고 있어 수화책을 사서 좀더 자세히 배워 아이들과 함께 노래에 맞춰 수화도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예전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집안청소를 하는 것이 다였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좀더 많은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번엔 양로원에 가는 것입니다.

저번에 학교에서 봉사활동으로 양로원에 간적이 있었는데 신아원에서의 느낌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났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느껴져 봉사활동을 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아원보다 양로원이 더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많이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의 목표는 양로원과 신아원을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며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아직 저는 봉사활동에 대해 아직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말씀대로 “마음으로 봉사 하라” 라는 말을 되새기며 봉사자로서의 바른 자세를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이색학과를 소개합니다.

## 아트조명학과(동명대학)

조명의 디자인과 자동화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취업 및 창업이 보장되는 창의력을 갖춘 선도적 전문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함.

• 졸업 후 진로 : 조명엔지니어 - 제조업 : 삼성, LG 등 대기업 조명분야 / 광원제조, 기구부제조, 자동화기기제조, 방송국, 중소기업, 전기공사업 등

• 조명디자이너-조명설계 : 실내조명, 도로조명, 공항조명, 건물조명 등 관련 산업체, 건축 설계사무소, 전기설계 및 감리사무소, 리모델링업체 창업, 인테리어업체 창업, 개인갤러리의 운영 등

## 자동차튜닝전공(동아인재대학, 대전대학, 포항1대학, 김천과학대학)

최근 자동차튜닝의 성장률이나 수입조에 달하는 시장규모 그리고 일반 양산차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여 메이커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 중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메이커들이 스포셜모델을 등장시키며 튜닝산업에 뛰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튜닝기술과 이론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마스터하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자동차튜닝 전문가로서 국내의 기술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첨단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고급인재를 양성한다.

• 졸업 후 진로 : 자동차튜닝부품 제조업체, 자동차튜닝 조립업체, 자동차튜닝 검사기관, 자동차부품제조회사, 자동차서비스업체, 드래그레이서, 자동차검사장, 자동차정비학원교사, 자동차서비스사업, 자동차영업소, 중고차매매상사, 자동차보험회사, 수입차판매점, 자동차딜러, 기업체연수원 자동차

## 커피바리스타전공(나주대학)

'바리스타(Barista)'는 좋은 원두를 선택하고, 커피머신을 완벽하게 활용하여 고객의 시각과 입맛에 맞는 '멋있고 맛있는 에스프레소(커피)'를 만들어 사람들의

고급화된 입맛을 감동시키는 '커피의 예술사'입니다. 즉 맛있는 커피를 추출하는 완벽한 서비스와 소양이 갖춰진 '커피 아티스트'입니다. 바리스타는 커피가 어떻게 생산되고, 여러 종류의 커피가 각각 어떤 향과 맛이 나며, 어떤 특징이 있고, 무슨 빵과 잘 어울리는지를 파악하는 등 커피에 관한 모든 것을 익혀야 하며, 아울러 손님들에게 커피에 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졸업 후 진로 : 커피조리전문교육가, 호텔커피숍, 커피제조회사, 커피조리전문 프리랜서, 기능성 커피 전문점창업, 커피마케팅, 커피전문프렌차이즈점, 커피전문 Take Out점, 식음료 회사

## 충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서 일반적인 셀 애니메이션, 종이애니메이션, 클레이애니메이션, 디지털 애니메이션, 실험애니메이션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제작 과정을 학습하고, 실제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창의력의 창출부분과 기능부분을 조기 숙달케 함으로써 전문적 애니메이션 아티스트로서의 기본 틀을 확립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창의적인 애니메이터를 양성

• 진로 : 애니메이터, 기획 및 제작자, 언론사, 출판사, 기업체, 홍보대행사, 게임제작사, 영화사, 광고특수효과 제작사, 영상디자인회사, 광고방송사, 프리랜서, 웹디자인업체 등 진출 및 관련대학 진학

### 만화창작과

만화일러스트, 캐릭터, 캐리커처, 카툰, 스토리만화, 실험만화, 디지털만화 등 다양한 만화의 장르를 기획에서 제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학습, 실증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교육을 실현하여, 다양한 만화표현 및 작품 비평 능력을 기르고 대중적인 만화작품의 실기 표현능력뿐만

아니라 연출력, 스토리구성능력을 학습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창의적인 만화전문인을 양성

• 진로 : 만화가, 광고업, 일러스터, 프리랜서, 디자이너, 캐릭터 디자이너, 영화사, 광고특수효과 제작사, 영상디자인회사, 광고방송사, 웹 디자이너 업체, 출판사 및 관련대학진학

## 충남인터넷고등학교

### 컴퓨터그래픽과

컴퓨터그래픽과에서는 풍부한 조형감각을 기초로 한 영상편집 및 2차원, 3차원 그래픽 등을 컴퓨터로 자유롭게 구현하여 각종 CF, 영화, 멀티미디어 및 CD-ROM TITLE 제작, 제품·광고디자인, 신문·잡지 편집,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진로 : 그래픽 관련 모든 학과, 컴퓨터 그래픽과, 컴퓨터애니메이션과, 컴퓨터게임학과, 광고디자인 기획실/C.I.P홍보디자인실, CF광고 제작회사/이벤트회사/옥외 광고회사/POP판촉사, 패키지(포장)·제품 디자인 업무 담당자, 멀티미디어 CDE타이틀 제작 디자이너/웹디자이너, 출판 및 DTP사업/정부기관/언론사/방송국

### 인터넷상거래과

미래 지식 정보화 사회의 원동력이 될 인터넷상거래분야인 네트워크 관리, 정보검색, 웹서버 구축, 홈페이지 만들기, 인터넷 쇼핑을 제작, 전자 상거래 등의 조기 교육을 통한 여 장차 인터넷 분야를 선도할 인재를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진로 : 인터넷 관련 모든 학과 : 전자상거래과, 인터넷방송학과, 인터넷비즈니스과, 웹디자이너, 웹마스터, 인터넷 통신관련 벤처기업 창업

# 예절실천봉사단 '너나들이'

금산동중학교



금산동중학교(교장 임신영)에서는 다양한 영재성·창의성 계발을 위한 방과후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예절실천봉사단 '너나들이' 동아리는 그중 하나이다.

'너나들이' 동아리는 지도교사 이호남, 단장 강태양을 중심으로 20명의 단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인 향림원을 월 2회 정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직접지원RCY를 중심으로 비단골 사랑 만들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향림원을 찾아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8명의 어린이와 일대일 결연을 맺고 손가락인형과 플래시 카드를 활용하여 영어를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영어학습봉사를 하고 있다. 영어학습봉사는 연간 학습 내용을 계획하고 그 내용에 따라 즐겁고 흥미로운 영어 회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새싹방 유아(5세~7세)들에게는 숙제 도우미, 동화책 읽어주기, 요술풀선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월부터 총 12회 47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왔다. 특히 새싹방 유아들과 함께하는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험도 실시하였고 어린이날과 추석에는 각자 선물을 준비하여 전달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도 보여주었다.

'너나들이' 동아리 단원들은 각자의 용돈을 조금씩 저축하여 희망의 꽃동네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3월부터 지금까지 후원회비를 160,000원을 보내고 있다.

청소년직접지원RCY의 비단골 사랑 만들기 봉사활동은 독거노인과 인삼골건강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청소, 말벗, 안마해드리기, 나들이 도와드리기, 김장시에 미늘까기 등 폭넓은 봉사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8월 10일~13일에는 3박 4일의 꽃동네 봉사활동도 하였다. 특히 11월 12일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28분을 모시고 비단골사랑만들기 대전동물원 나들이 봉사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동물원 관람을 위하여 몇시간 동안 휠체어를 정성껏 밀어드리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다.

'너나들이' 동아리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착하고 올곧은 심성을 가진,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들로 성장하고 있다.





생

축

아산 둔포고등학교  
 천사들의 모임대표 박은  
 희)은 2001년 둔포 관내의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면서 너

넉하지 않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어렵게 생  
 활하는 **쌀**의탁 노인 분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 현재 5  
 기 24명이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이다.

올해는 ①땃밭을 가꾸어 야채와 고구마를 갖다드린다 ②장애시설 '사랑의  
 집 에텐'에서는 장애우들과 어울려 미술활동을 한다 ③축제 때 먹거리 장터를  
 운영 수익금을 시설에 기부한다 ④2학기에 경로잔치를 연다 ⑤여러 가지 물건  
 을 수집하여 시설과 활동에 활용한다 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매주 토요일 오후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뵙고 아픈신 데는 없으신지, 학교  
 에서 일어난 즐거운 얘기도 해 드리고 청소, 안마도 해드려 외로움을 털어드리  
 고 있다. 그리고 관내 중증장애인 시설인 '사랑의 집 에텐'에서 장애우들과 미  
 술활동을 해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서로 재미있어 한 한해였다.

느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으로 모아진 쌀과 지난 3월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에 응모해 받은 지원금은 결연을 맺은 노인분과 장애시설에 생필품으로 지원  
 하였다. 어버이날과 생신 그리고 명절에는 꽃과 함께 선물을 해 드리고 케익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였다. 특히 전교생을 통해 수집한 크레판스와 물감을 가지  
 고 '사랑의 집 에텐'에서 데카코마니, 연근이나 당근 등을 찍어 모양내기, 종  
 이접어 정원 만들기 는 장애 비장애를 뛰어넘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월 격년으로 치러지는 우리학교 '한비축제'에서는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생긴 수익금을 '사랑의 집 에텐'에 난방유류지원금으로 보내드리고 경  
 로당에서는 경로잔치를 열었다.

2009년

장 에

였

## 목천중학교



2005학년도 충청남도교육청지정 청소년자원봉사 시범학교 운영 보고회를 2005.11.18(금)에 목천중학교(교장 김광희) 흑성관에서 교육과정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봉사활동의 활성화라는 주제로 충청남도 교육청 관계자,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 관계자, 각 시군 교육청의 교장, 장학사, 봉사활동 담당선생님, 천안관내 중학교 봉사활동 담당선생님, 유관기관대표, 내빈등 100여분을 모시고 봉사활동 관련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개수업을 하였고, 시범운영을 통해 개발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전시하고, 우수 동아리 활동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운영내용을 공개 보고하는 행사를 가졌다. 목천중학교가 1년 동안 시범운영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 운영을 위해 먼저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의 의미와, 학생들의 봉사학습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소양교육으로 봉사활동의 필요성과 자원봉사의 의의 및 특성, 자원봉사자의 자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영역, 무엇을 할 것인가? (프로그램소개) 등의 주제로 교육을 받았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를 홍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1학년은 기초질서 지키기, 2학년은 교통안전, 3학년은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학년별로 계획하고 활동하였다. 환경보존활동으로 목천읍 주변 문화 유적지 바로알기, 문화 유적지 답사 및 환경정화 활동, 문화재 주변청소, 잡초제거 활동을 학년별 및 반별 활동내용을 달리하여 운영하였다. 위문활동으로 1학년은 장애인 체험하기, 2학년은 장애인 목욕시키기, 청소하기, 빨래하기, 일손돕기, 3학년은 음식 만들어 위문하여 대접하기의 봉사학습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실천 내용으로는 1학년은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체험활동을 2학년은 살림의 집, 사랑과 평화의 집, 사랑의 집에 방문하여 청소하기, 장애인 목욕시키기, 빨래하기, 일손돕기 활동을, 3학년은 음식 만들어 대접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일손돕기 활동으로 1학년은 원예연구원 방문 및 일손돕기 활동, 2학년은 독립기념관 일손돕기 및 흑성산 KBS 중계소 견학 활동을, 3학년은 우리 역사 바로알기 프로그램으로 국학원 견학활동을 하였다. 지역사회 개발활동

을 학년별로 1학년은 지역신문 만들기, 지역안내지 만들기, 2학년은 지역안내지 만들기, 지역사회 관광 여행안내지 만들기, 3학년은 지역 문화재지도 만들기, 지역사회 복지지도 만들기 활동을 하였으며, 개인별 거주지의 대청소, 도로정비 환경미화 활동을 사전 계획서를 받아 각 희망 장소별로 활동하였다. 봉사활동 문예대회로 봉사활동과 관련한 문예대회를 통하여 타인의 봉사활동 내용을 알게 되고 교육적인 보상의 효과와 더불어 봉사활동의 실천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표어, 포스터, 글짓기, 4행시 짓기를 하였다.

각 교과별 봉사활동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위해 교과내용에 포함된 다양한 봉사활동 요소를 추출하여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각 교과서에서 추출한 봉사활동 관련 덕목을 교과 담당교사가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고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구안·적용할 수 있었다.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봉사학습을 수시로 교육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봉사활동 능력을 향상 시켰으며, 교내 자율장학 계획에 의거하여 전교사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동아리별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생활화하기 위해 교내 자원봉사 동아리를 조직 운영하되 학생들의 자생적 동아리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교육적



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활동의 내용과 방향에 자유를 부여하며, 교육적인 절차에 따라 활동하도록 유도하여, 12개의 동아리가 조직되어 운영되었다. 동아리 연합 봉사활동으로 12개 동아리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사회 보호시설과 지역사회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살고 계신 학생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효를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 행사를 계획하여 쌀을 한 봉지씩 내어 한가마를 모았고, 썩을 뜬어 다듬고 씻어 떡을 만들고, 카네이션을 직접 색종이로 만들었다. 학부모들께서도 과일과 음료수를 마련하여 효자의 집, 사랑과 평화의 집, 신아원, 살림의 집, 관내 노인정 등의 장소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소외되고 관심이 적은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행사를 하였다.

동아리별 봉사활동 내용으로 효 디딤들은 살림의 집과 신아원에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 1회 나사렛대학 자원봉사 경진대회 대상, 제7회 전국중고생 자원봉사대회 은상을 수상하였다. 나무내 사랑은 신방천의 생태탐사를 통해 환경오염의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하는 활동과 클린천안 사업에 참여하였고, 4-H는 다양한 국화 재배 활동을 통한 노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풍물반은 풍물의 기능을 연마하여 한국의 전통 음악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각종 행사시 공연에 참여하였고, 흙과 사랑반은 흙으로 빛은 도자기를 봉사활동 터전에 제공하고 독립기념관에서 페이스페인팅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생활 한자반은 한자명언, 성어 등을 스티커로 제작하여 홍보하고, 교내외 환경정화 활동을 하였다. 정보동아리는 정보화 기기 관리 및 수업 시 ICT도우미 활동, 올바른 인터넷 문화와 네티켓 확산, 학교 홈페이지 관리 및 모니터링 활동을 향토 문화 연구반은 조상들의 문화 자료를 조사와 탐구를 통해 문화재 보존 의식을 함양하는 활동을 하였다. 독서반은 다양한 독서홍보 활동과 독서 활동을 하며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활동을 하였다. 십자수반은 오염된 생활환

경 정화활동 및 자연환경보존활동을, 생활 체육반은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홍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영화 감상반은 감상편지 쓰기, 청소년 권장 영화 목록 진단지를 만들기, 올바른 영화 감상을 유도하는 내용의 책갈피 제작을 통한 홍보활동을 하였다.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봉사활동의 종합적 관리를 하였으며, 학생 봉사활동과 관련된 제반 정보의 습득, 학생 봉사활동의 효율적 관리 및 활동을 지원, 학생 자원봉사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연결하여 협력 체계의 구축, 활동 터전, 활동 거리에 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학생들이 직접 온라인상에서 신청하여 자율적인 개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학교를 운영한 결과로 첫째 특별활동 중 봉사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가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학생들에게 교사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학습의 장을 지역사회로 연장하는 자원봉사학습의 실천 효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각 교과별로 관련 요소를 추출하고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수-학습 과정에 활용하였고, 교내 자율장학을 통해 교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되어 수업과 봉사활동을 연계함으로써 봉사학습의 실천과 평가가 이루어졌다. 셋째 학생이 직접 동아리를 구성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어 동아리 연합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터전을 마련하고, 학부모에게 봉사활동의 자율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효 실천을 통한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 말로만 하지말고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소유진 논산여자고등학교

우리학교에는 많은 동아리들이 있다. 그중 내가 속 한 동아리는 '해바라기'라는 동아리다. 생각해보면 내가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제대로 실천 할 수 있게 해 준 계기가 이 동아리 들어와서부터 인 것 같다.

처음 동아리 선배들과 애육원에 갔을 때, 봉사활동을 끝나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딜 가냐며 자기랑 놀아야 한다면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던 일이생각난다. 청소 빨래 등 일을 도와드리면서 아이들과 같이 놀고 이야기 할 땐 몰랐는데 막상 헤어진다 생각하니 섭섭하고 아쉬웠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리고 문득 멍하니 서있었다. 이 천사 같고 해맑은 아이들이 그 따뜻하고 편안한 엄마 품에 버려져 잘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얼마나 많이 외롭고,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쉽게 아이들과 헤어질 수 없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다음주에도 또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애육원을 나왔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나도 몇 년 만 지나면 어른이 되는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만 하겠다고 말이다.

애육원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이 사회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잘못된 것도 없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한 인간의 자격을 잃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1주일만 지나고 다시 애육원을 찾았다. 처음 왔을 때는 일도 서툴고 잘 못했었는데 처음보다 수월해 졌고, 직접 우리가 할 일 찾아서 봉사활동을 해 나갔다. 점점 애육원을 자주 다니면서 내가 애육원에 지내고 있는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이 생활과 환경에서 웃으며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상황을 탓하지 않고 이겨 내려는 모습을 보고 사소한 일에 힘이 들고 좌절했던 내가 참 한심하고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지내는데 그에 비해 나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마음껏 공부도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줬다.

동아리에 들면서 많은 것을 접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충청남도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에서 해외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좋은 계기가 되어서 참여 하게 되었다.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베트남에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해외를 처음 나가보니 비행기 탄다는 들 뜬마음으로 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생활 해 보고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조차 부끄러웠다.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내가 처음에 느꼈을 때는 "당연히 우리보다 못 살겠지" 이렇게 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가서 눈으로 보니까 빈부격차가 많은 나라.. 가난한사람들이 더 많은 나라. 아파도 아프다고 할 수 없는 나라인 것 같았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길에 누워 있는 사람, 맨발로 다니는 사람, 온통 오토바이 천지에 공해가 심각했던 것 같다. 우리가 베트남에 간 목적은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도 있지만 국제 교류와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위해.. 한국과 베트남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갔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지역적 빈부격차가 심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는 가난한 마을 '퐁안'이라는 곳을 갔다. 그 곳을 가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었던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도로정비, 집짓기 등.. 처음해보는 일이라서 많이 서툴고 힘도 들었다. 말이가 쉽지..더운데다가 물도 쉽게 구하기가 어려워서 불편함도 있었지만 내가 직접 해 냈다는 게 뿌듯하고 좋았다. 차를 타고 이동해서 어느 한 시골마을로 갔는데 가난한 할머니와 손자를 위해 집을 만들어 주는데 한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원에 불과한 돈으로 생활한다고 한다. 참..이렇게 못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아끼지도 않고 막 써버리는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 당장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우리 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물놀이공연을 했는데 정말 성공리에 공연도 마치고 베트남에 가기 전에 풍선아트를 배워 갔었는데 그곳 아이들은 풍선을 처음 보는 듯 굉장히 신기해하고 좋아해서 손톱이 부러져도, 부어도, 아픈 줄도 모르고 칼, 양관, 기린, 생쥐, 꽃 등을 많이 만들어주며 위로 해 주었다.

또 장애우들과 등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 좀 꺼려지기도 하고 겁도 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내가 한심하고 화도 났었다. 우리가 버스를 먼저 타고 그분들을 만나러갔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손도 잡아 주시고 반갑게 맞이 해주셨다.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두 명씩 짝을 지어 버스를 타고 맛있는 것도 나누어 먹고 서로 먹여 주고 또 노래방기계를 틀었는데 우리보다 장애우분들께서 더 잘하시고 서로 부르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나도 즐거웠다. 해외에 있다는 것뿐이지 사람들의 느낌은 다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으로 돌아왔다. 아마 학창시절의 많은 봉사활동 중 이번 프로그램은 영원히 못 잊을 체험 이었다.

또 얼마 전 '장애우와 함께하는 등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동아리 친구들과 전라북도 선운산에 도착하여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거 언제 올라갔다 오냐" 이렇게 생각 했는데 같이 노란 띠를 나뭇에 걸으면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장애우분들께서 우리의 도시락도 싸주셔서 게임하면서 김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 금방 내려 온 듯 했다. 차에 올라 돌아오는 길에 다들 힘이 드셨는지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분도 계셨고 노래 부르시는 분도 계셨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처럼 보여 나도 흐뭇했다.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다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생각하면 참 한심하고 끔찍은 생각이 것 같다.

지금도 학교에서 몇몇 친구들은 봉사활동 20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우지 않으면 기본점수를 받지 못하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서 채우기 바쁘다. 또 봉사활동점수 별것 아니라는 생각으로 20시간을 다 채우지도 않고 학년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 나도 고등학교에 올라와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단지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봉사활동은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고, 느끼게 해 줄 뿐 아니라 보람 있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축복 받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태권도, 검도 등 운동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찾아가면 반가워하고 기다려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를 또 행복하게 해준다.

장애우들을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다만 몸이 좀 불편한 사람으로 인식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실천하는 봉사활동이야말로

진정한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진정한 봉사활동은 아주 사소한 것 일지라도 계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봉사활동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고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천 가능한 능력의 모든 것은 돈으로 계산되어 질 때 우리는 그 가치를 여지없이 실천한다. 이러한 돈이 되는 것들의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고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사회에 베풀어주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1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속적 일 때 우리는 그 실천에 대한 가치와 만족을 느끼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산소와 같이 신선하고 고귀한 것이다. 나 자신에게는 아주 사소한 것도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나 하나의 실천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만 활동하지만, 평소에도 언제든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말이나 시간 때우기의 생각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실천하는 봉사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2005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체험수기 부문 최우수상

# 봉사하는 마음, 꽃피는 사랑



방 글\_금산동중학교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선생님들께서 전입하여 오셨다. 그리고 신입생들과의 대면을 위한 입학식행사가 열렸다. 운동장에 모인 우리들은 새로 오신 선생님들과 작고 귀여운 신입생들을 신기

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신입생들의 도전로 밟기 행사가 끝나고 새로 오신 선생님들의 소개가 이어졌다. 새로 오신선생님은 수학, 영어, 한문, 그리고 미술선생님이셨다. "방글이는 참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나지막한 소리로 들려오는 소리, 난 그 소리에 귀가 솔깃해 뒤를 바라보았다.

바로 새로 오신 미술 선생님이셨다. 그 뒤로 나는 미술선생님과 새로운 인연을 맺고 많은 다양한 활동을 했다. 특히 우리학교는 교육 특색사업으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특색 있는 방과 후 활동을 하였다. 재능동아리, 효 동아리, RCY 동아리, 환경사랑 동아리가 만들어졌다. 나는 미술선생님이 운영하시는 환경사랑 동아리를 선택하였다. 나의 중학교 생활은 바쁘게 시작되었다. 이제 돌이켜보니, 중학교 시절의 모든 기억들이 소중한 추

억으로 남아있다.

환경사랑 봉사활동은 4월 5일 식목행사의 일환으로 푸른 마음, 푸른 나뭇가꾸기 행사로 시작되었다. 학교에서 묘목을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식목행사를 하였다. 식목일날에는 금산군 산림조합장님께서 방문하셔서 묘목으로 많은 묘목을 기증해주셨고, 산림 가꾸기의 중요성과 나뭇심는 방법과 요령에 대하여 강연 해주셨다. 환경사랑 봉사활동의 첫 날, 나는 학교에서 나누어 주신 묘목을 아빠에게 전해드리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우리 학교의 푸른 마음, 푸른 나뭇가꾸기라는 식목행사를 자랑했던 일이 생각난다. 그 뒤로도 우리학교에는 많은 다양한 환경보전 봉사활동이 이루어졌다. 우리학교 주변과 마을곳곳마다 우리 환경사랑 동아리 학생들이 활동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진다. 우리들이 땀을 흘려가며 가꾸어 놓은 학교를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보람된 일인지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나는 환경사랑 동아리친구들과 함께 상의하여 학교에 남아 있는 공터를 이용하여 야생화 화단을 만들기로 하였다. 야생화 모종을 가져오던 날, 작은 잎과 가는 뿌리를 다칠세라 조심조심 정성스럽게 옮겨 심었다. 야생화 가꾸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그 날을 생



각하며 서로를 도와가며 열심히 일을 하였다. ■더운 여름날에도, 땀을 흘리라며 멀리에 있는 수돗가에서 일일이 물을 퍼서 날라서 야생화 모종에 하나 하나 물을 뿌려주었다. 우리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야생화를 탐구하고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여 예쁜 표지판을 세우고, 야생화 체험 학습장을 만들었다. ■사히 잘 자라서 예쁜 꽃잎을 피울 그 날을 기대하며, 순번을 정하여 야생화 화단에 정성껏 물을 뿌려주었다. 찌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빠지지 않고 열심히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정성으로 가꾸어 가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야생화의 은은한 매력에 깊이 빠져 버렸다.

우리 학교에 야생화 화단이 조성된 뒤로, 나는 야생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마침, 선생님께서 금산군 군북면에 있는 서대산에서 숲속의 야생화 전시회 행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다른 많은 종류의 야생화를 보고 싶은 마음에 나는 서슴없이 참가하고 싶다고 했던 것 같다.

그 날은 이슬비가 가늘게 내리던 날이었다. 산과 자연과 어우러진 야생화는 왠지 모를 소박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다. 왜 하필 이런 깊은 산속에서 전시회를 할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야생화를 감상한 후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야생화들은 자연 속에서 더욱 깊은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산이 고이고이 품고 있는 자연속의 보석이었다. 그 날은 내가 평생 동안 구경도 못할 보물을 보고 온 셈이었다.

우리나라의 산천에 피어나는 들꽃들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살펴 보며, 내 고향 주변에 있는 야생화들을 잘 보살피고 가꾸고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야생화를 감상하다 보니, 서양 꽃의 화려함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야생화의 은은한 아름다움이 오히려 더욱 귀하게 여겨졌다. 여름방학이 시작될 ■렵, 나는 환경사랑 동아리 학생들과 우리고장 오염실태를 살펴보고 봉사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금산천 주변의 쓰레기와 오물을 주우면서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고장의 오염실태를 사진으로 찍고, 인터넷에서 환경보전 관련 자료를 찾아 스크랩을 하였다. 우리들의 스크랩 작품은 환경자료집으로 만들기로 하였다.

■더운 여름이 지나갈 ■렵, 우리고장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전국 규모의 금산 인삼축제가 열렸다. 나는 환경사랑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동아리실에 모여 환경보전 회의를 하였다. 우리 고장에서 열리는 인삼축제 기간에 환경사랑 동아리 학생들이 축제를 홍보하고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우리 고장에서 열리는 큰 행사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실천하기로 한 것이다. 드디어 인삼축제가 열리는 날!

우리는 선생님의 환경보전 봉사활동에 대한 말씀과 주의사항을 듣고, 인삼축제장에 모여 거리 청소를 했다. 그리고 인삼축제에 오신 손님들을 안내하거나 홍보물을 나누어 드리기도 하였다.

쓰레기를 줍는 일은 힘이 들었지만, 우리가 주운 것은 쓰레기뿐만 아니라

모두가 버린 양심을 다시 줍는 일이었다. 비록 힘들기는 하였지만, 보람 있는 봉사활동이었다. 인삼축제를 막바지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다. 가을에는 우리 학교 축제마당 행사가 있다. 축제가 다가서인지 확실히 선생님들도 매우 바빴다. 미술 선생님은 학교 곳곳에 작품 전시장을 꾸미고 계셨다. 나는 환경사랑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을 도와 드렸다. 그리고 환경사랑 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모아 아나,바다 장터를 열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을 모아 서로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며, 물자를 절약하는 행사였다.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친구

## 2005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수상자 명단

### ☞ 개인봉사활동

대상  
(문화관광부장관상)



박아람  
천안북일여자고등학교

대상  
(문화관광부장관상)



최다애  
목천중학교

최우수상  
(충청남도지사상)



이은실  
삼고고등학교

최우수상  
(충청남도지사상)



김제인  
당진중학교

우수상  
(충청남도교육감상)



유재희  
서일고등학교

우수상  
(충청남도교육감상)



유단희  
천안불당중학교

특선  
(충청남도교육감상)



곽병철  
신평고등학교

봉사상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상)



양지연  
공주여자고등학교

봉사상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상)



이영욱  
공주정보고등학교

### ☞ 동아리활동

구분	성명	소속
대상 (문화관광부장관상)	천사들의 모임(정영희)	둔포고등학교
	너나들이(강태양)	금산동중학교
최우수상 (충청남도지사상)	21C 청년자원봉사 네트워크 OLO21(고민정)	공주대학교
	사랑누리(이수한)	충남인터넷고등학교
	한사랑뜨뜨봉사단(김제인)	당진중학교
우수상 (충청남도교육감상)	해바라기(소유진)	논산여자고등학교
	석문중 밀알봉사단(조한나)	석문중학교
특선 (충청남도교육감상)	나누미(김혜진)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아름다운조리나눔터(권소연)	병천고등학교
	나무내 사랑반(박은솔)	목천중학교
	꽃밭향기봉사단(손재영)	태안여자중학교
봉사상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상)	둥지(김혜영)	건양대학교
	수중환경보호단(이선교)	남서울대학교
	학생사회봉사단(이형상)	나사렛대학교
	뷰티도우미(장현경)	병천고등학교
	나눔 동아리(문정선)	합덕여자고등학교
	합덕여고 RCY봉사단(안혜림)	합덕여자고등학교
	예절(효)실천봉사단(이동혁)	기민중학교
	클로버지킴이(변상선)	창기중학교
	봉황음악봉사단(김세진)	봉황중학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이 여기에 모여있다.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연습하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삶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인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곳들이 여기에 모여있습니다. 저희센터 홈페이지(http://www.bongsai.or.kr)에 오면 다양한 봉사활동과 각 시설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본센터 홈페이지(www.bongsai.or.kr) 접속 하여 청소년 회원가입회원가입에 가입하여야만 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로그인하여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 클릭하여 활동명/기관명/지역명/교급명/지역별로 본인에 맞는 봉사활동프로그램을 찾아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 1. 청소년 회원가입(www.bongsai.or.kr)



\*표시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2. 프로그램신청(봉사활동신청)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하여 '봉사활동하고 싶어요'를 클릭한다

